

우승보다 값진 준우승

경상남도/세팍타크로

허정훈(동명중학교)

세팍타크로라는 운동은 체육 선생님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전에 학교 수행평가를 통해 세팍타크로 공으로 리프팅을 배울 수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팍타크로라는 운동이 너무 어려웠고 관심도 별로 가지지 않았다. 대회가 있기 몇 주전까지만 해도 나는 나갈 생각이 없었지만 우리 팀 공철이공육이의 원래 선수였던 한 친구가 다리를 다쳐서 얼떨결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렇게 대회 2주 전부터 대회에 참가하는 친구들과 연습을 하며 처음은 공도 발에 전혀 맞지 않고 리프팅도 겨우 3~4개 밖에 하지 못해서 '내가 이걸 2주 만에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앞섰고 공이 내 생각과 다르게 멋대로 날아가서 답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 체육 시간과 학교를 마치고 난 뒤 방과 후 시간에 계속 연습하고 체육선생님과 나보다 훨씬 많은 경험이 있는 선수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조금씩 늘어갈 수 있었다. 친구들과 연습에서 했던 경기에서 내가 공을 잘 받아서 넘길 때마다 나의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아서 뿌듯했고 세팍타크로에 대한 흥미도 점점 쌓여갔다.

그렇게 2주간의 연습 후 대회를 하는 날이 밝아왔다. 사실 우리 팀은 다른 대회가 겹쳐 대회 전날에 연습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과연 우리 팀이 잘할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대회장에 들어가서 몸을 풀고 팀원들과 연습을 했다.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되었다. 첫 경기는 <우가> 팀과 <부춘국밥> 팀의 대결이었다. <우가> 팀은 우리학교 팀이었고 <부춘국밥> 팀은 유일한 고등학생 팀이었다. 우리학교 친구들이 과연 고등학생들을 이길 수 있을까 걱정되었지만 그 걱정은 괜한 걱정이었다. <우가> 팀 친구들의 환상적인 팀워크로 큰 점수 차로 이긴 것이다. 우리 팀도 저렇게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두 번째 경기는 우리 팀과 <크롱> 팀의 대결이었다. 첫 경기라 꼭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전날에 연습을 하지 못해서일까? 우리 팀의 팀워크가 전혀 맞지 않았고 결국 큰 점수 차로 지게 되었다. 첫판을 큰 점수 차로 지게 되어 나를 포함한 우리 팀 친구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세 번째 경기는 <크롱> 팀과 <우가> 팀의 대결이었다. 결과는 <우가> 팀이 또 큰 점수 차로 이기게 되었다. <우가> 팀은 선수인 친구 한명의 실력이 뛰어났고 그를 받쳐주는 일반 학생 친구들의 실력도 뛰어나 좋은 팀 만들어낸 것 같았다.

그렇게 점심 식사 후 네 번째 경기가 시작되었다. 네 번째 경기는 우리 팀과 <부춘국밥> 팀의 대결이었다. 우리 팀은 첫 번째 경기를 큰 점수 차로 졌기에 걱정이 컸다. 우리 팀은 원래 앞자리였던 선수인 친구를 실수가 많았던 뒤쪽인 내 옆으로 바꾸어 경기했는데 이 전략이 큰 도움이 되었다. 실수가 많았던 나의 부족한 실력을 선수인 친구가 보충해줌으로써 뒤쪽의 방어가 강해졌고 앞쪽의 친구들이 적절한 공격을 잘해주었다. 그렇게 상황은 24대24였다. 25점 단판승이었기 때문에 이번 판이 마지막이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크게 마지막 구호를 지르고 경기를 했다. 계속되는 긴장되는 랠리가 이어졌고 나는 우리 팀 친구들에게 민폐가 되지 말자는 생각으로 집중하여 위험했던 공격들을 잘 받아넘겼고 우리 팀의 좋은 팀워크로 승리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1점 차로 극적인 승리를 얻어 낼 수 있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우리 팀과 <우가> 팀의 경기였다. 전판의 승리로 우리 팀은 자신감을 되찾았지만 과연 1등이었던 <우가>팀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가 시작되었고 양팀 모두가 좋은 팀워크로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고 한 판 한판 소중한 점수를 얻어내며 어느새 또 점수는 24대24였다. 그렇게 마지막 한판 양 팀 모두가 집중하여 랠리가 이어졌고 우리 팀은 2등을 할 수 있었다. 그냥 2등이 아닌 모두 1점차의 값진 승리로 이겨냈기 때문에 1등보다 더 값지고 훨씬 의미 있는 2등이었다. 나는 대회에서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 실수를 점수로 채워주는 멋진 팀원들에게 정말 고마웠다. 걱정도 많았고 부담도 컸지만, 팀원들과 하나 될 수 있어서 후회 없는 대회가 된 것 같다.

이 대회를 통해 축구와 태권도만 좋아했던 나는 세팍타크로라는 운동도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태권도 시합에 참여했지만 내가 나갔던 태권도 시합은 개인전이었기 때문에 팀워크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여 세팍타크로는 나에게 협동심, 팀워크를 알려주는 운동이어서 더욱 인상 깊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세팍타크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것은 경험 부족이었고 그저 리프팅이 어려워서 안 하려고 했지만 경험해보고 도전해보니 이 운동도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도전해보고 경험해보고자 하는 도전정신을 얻을 수 있었다. 코로나19가 빨리 회복되어 다른 여러 대회 들이 활발해지면 꼭 도전해봐야겠고, 이제 세팍타크로 경기도 흥미 있게 찾아보아야겠다. 마지막으로 세팍타크로 대회를 통해 얻은 도전정신으로 내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